

2024학년도 수시모집
모의논술고사 시험문제

고교명	
성명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
한신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특징

- 한신대학교 논술고사는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준비가 가능한 문제로 구성되어 평소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쉬운 논술, 약식 논술 형태로 출제**되어 여타 논술고사와는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출제방향

- EBS수능특강, 수능완성 등의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중심이 되고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3. 평가방법

구 분	반영비율	영역별 문항수		배점	고사시간	총점	답안형식
		국어	수학				
인문계열	60%	9	6	각 문항 8점	80분	120점+480점(기본점수) = 총 600점	노트 형식의 답안 작성
자연계열	60%	6	9				

4.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구 분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
수학	수학 I, 수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문예창작학	10	자연	수리금융학	10	
	한국사학	10		응용통계학	1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4		AI-SW계열	소프트웨어	64
	경영학	8			인공지능	
	IT경영학	8			데이터사이언스	
	글로벌비즈니스학	8			XR콘텐츠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10			지능형IoT	
	사회복지학	8			휴먼머신인터랙션	
	심리·아동학	10		시스템반도체학	8	
				합계	168	

국어영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들이 있다. ‘개념 미술가’라 불리는 이들이 그들이다. ‘개념 미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린트인데, 그는 개념 미술이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념 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개념 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다.

예술의 물질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헤겔의 의견에 따르면, 예술은 필연적으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행한다. 고대 오리엔트의 예술을 대표한 것은 피라미드나 �핑크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이때 정신은 아직 육중한 물질에 눌러 있었다.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장르는 조각이었다. 헤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신과 물질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에서 예술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이후 정신은 더 성장하여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르네상스 예술을 주도한 장르는 회화였다. 회화는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 현실의 한 차원을 접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 더 정신적이다. 또한 회화의 재료인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육중한 돌에 비해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 17세기에는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음악의 재료인 소리에는 거의 물질성이 없다. 19세기 이후의 주도적 장르는 시였다.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성을 완전히 벗고 학문과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다 자란 정신에게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한다. 절대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예술이 종언을 고했다는 그의 예언은 빛나갔을지 몰라도,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리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개념 미술가는 뿔 보크너였다. 1966년 그는 동료 작가들의 드로잉과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하여 네 권의 파일 노트에 끼워 조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솔 르윗과 댄 플래빈의 작업 스케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송장¹⁾, 존 케이지가 작곡한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파일의 첫 장은 화랑의 도면, 마지막 장은 복사기의 조립 도면이었다. 이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넘겨 가며 읽어야 했다. 이렇게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 작업 스케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송장 등이 예술이 될 때, 미술은 문학에 가까워진다.

솔 르윗에 따르면 개념 미술에서는 생각이나 관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 예술가가 예술에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모든 계획과 결정이 미리 만들어지고 실행은 요식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솔 르윗은 그의 작품 ‘벽 드로잉’의 실행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위탁했다. 그는 벽 드로잉을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이렇듯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는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산물 못지않은 작품이다.

개념 미술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을 선호한다. 첫째는 ‘레디메이드’로, 이를테면 마르셀 뒤샹의 변기처럼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입’으로, 오브제²⁾나 이미지를 엉뚱하거나 다른 맥락에 옮겨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뷔랑은 모든 곳을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줄무늬가 그려진 간판을 짊어지고 파리의 거리를 활보했다. 셋째는 ‘자료화’이다. 자료화는 작품을 구상할 때에 실제 작품이 모두 기록, 지도, 차트 그리고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 전시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는 개념 미술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작가 한네 다르보벤은 숫자와 글자, 낙서를 계열적으로 늘어놓음으로써 회화가 글쓰기라는 관념을 표현했다.

1)송장: 상품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송할 때 짐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는 상품의 명세서.

2)오브제: 예술에서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1. <보기>는 신문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조 모씨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윗글에서 조 모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2016년 5월 17일 춘천지검은 가수 겸 방송인 조 모씨(71)의 그림을 거래한 갤러리 3곳과 소속사 등 4곳을 지난 16일 압수 수색했다. 조 모씨의 ‘화투’ 그림이 대작(代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춘천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속초에 사는 화가 A(60)씨가 자신을 조 모씨의 대작 화가라고 나서면서부터다.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조 모씨에게 300점의 작품을 그려 주었고, 조 모씨가 자신의 작품을 받아 약간의 덧칠과 사인을 한 후 팔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조 모씨에게 받은 아이디어로 작품을 그렸다고 밝혔다. 조 모씨는 1970년대부터 ‘화투’ 연작을 통해 화가로도 주목받았다.

2. <보기>는 헤겔의 미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 ㉢을 대표하는 예술 장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반드시 순서대로 하나씩만 쓰시오.

<보기>

헤겔은 『미학 강의』에서 세 가지 예술 형식을 제시하는데, ㉠상징적 예술 형식, ㉡고전적 예술 형식, ㉢낭만적 예술 형식이 그것이다. 헤겔은 세 가지 예술 형식을 예술의 고유한 본질에 입각하여 구분한다. 헤겔에 의하면 예술에서 개념이나 내용은 예술이 표현하려고 하는 내적인 면, 즉 사상이나 이념에 해당하고, 이에 비해 실재나 형식은 개념이나 내용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소재나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감각적이고 형상적인 형태화’에 해당한다. 상징적 예술 형식의 일차적 특징은 내용과 형식이 서로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상징적 예술 형식은 ‘참다운 내용’과 ‘참다운 형식’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서, 내용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형식은 ‘직접적이며 자연적인 형태’의 단계에 머문다. 이에 비해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는 표현되어야 할 내용과 표현된 형식이 완전하게 일치함으로써 ‘아름다움의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된다. 여기서는 ‘표현’과 ‘표현되어야 하는 바’가 다르지 않고, ‘개념과 실재’가 서로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어 감으로써 ‘감각적 이념상’을 만들어낸다. 낭만적 예술 형식은 고전적 예술 형식이 성취한 아름다움과 예술의 완성된 상태가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낭만적 예술 형식에서는 주관과 내면의 측면이 우세해짐으로써, 실재의 측면, 즉 소재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시된다. 즉 내용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형태화할 것인가는 낭만적 예술 형식 내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난로를 차지하고 둘러서서 한동안은 모두들 입을 봉하고 있다. 저마다 실망한 기색이다. 대학생은 아까처럼 창을 내다보고 있고 미친 여자는 의자에 멀뚱하게 앉아 있다.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깥을 들고 나타난다. 바깥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 있다.

"추위에 고생하십니까요."

농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복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뭘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우, 하고 너그러운 소리를 농부가 또 덧붙인다.

역장은 난로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남았다. 바깥을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 넣은 다음 바깥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도 역시 무료했으리라.

눈 얘기, 지난 농사와 물가에 관한 얘기, 얼마 전 새로 갈린 면장과 멀잖아 읍내에 생기게 된다는 종합병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화제는 이어진다. 처음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여들게 된다. 그들 중 음울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이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 사내는 난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통이를 한켠으로 치워놓는다. 보통이엔 한 두름의 굴비, 그리고 낡고 때묻은 내복 따위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내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우?"

늙은 역장이 결의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아,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삼십 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열추 다 아니 까요. 허허."

"아,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톱밥 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 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씨가 흰 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 광장의 행상꾼에게서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 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 허씨가 일러준 대로 그 조그마한 산골 마을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허씨의 노모는 이미 만날 수가 없었다. 죽어 묻힌 지가 오 년도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훌훌 마을을 떴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거였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담 안에 갇힌 채 다만 다른 사람들의 것일 따름인 그 쓸쓸한 계절들을 맞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싸여 죽음을 맞아야 할 한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고향은 본디 이 북이었지만 피난통에 가족들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커 왔던 것이었다.

하염없이 눈송이만 펄펄 쏟아지는 산길을 걸어 나오며 사내는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 문득 되돌아보면 멀리 산골 초가의 굴뚝에선 저녁 짓는 연기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 내리는 산자락에 고요히 묻혀 가는 저녁 무렵의 산골 풍경은 눈물겹도록 평화스러워 보였다.

(종략)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스러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 가 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 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 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도 (㉠).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재깍 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사르사르 송이송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라빛 성애가 툽밥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되비추어 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당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 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 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 저만 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툽밥이 툽툽 튀어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꼼꼼히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 임철우, 「사평역」에서

3. 위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그것이 작품의 내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해 보면 <보기>와 같다.

<보기>

구 분	작품 속 구체적 배경	효 과
시간적 배경	눈 내리는 겨울 밤	외부를 향한 시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내면을 응시하게 함.
공간적 배경	작은 기차역 대합실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타인과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으며, 또한 삶의 경로가 바뀌는 곳으로서 자신의 지나온 길과 같음을 생각하게 함.

따라서 ㉠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여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10자 이내의 문장으로 쓰시오.(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서 제외함)

4. 위 작품은 ㉠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인생의 덕목이 무엇인지는 이미 소설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보기>는 이와 관련 있는 속담들이다. <보기>의 괄호 속에도 들어가는, 이 덕목이 무엇인지 2음절의 단어로 쓰시오.

<보기>

- ()도 품앗이라.
-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에 막힌다.
- 도둑놈도 ()은/는 있다.
- 머리 위의 강권은 받아 넘겨도 옆구리 ()은/는 물리치지 못한다.
- 세상은 각박해도 ()은/는 후덥다.

수 학 영 역

1. $2 \leq n \leq 100$ 인 자연수 n 에 대하여 $(\sqrt[5]{5^3})^{\frac{1}{2}}$ 이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시오.

2.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a_{14} = 13$ 일 때, $(a_4 + a_5 + a_6 + \cdots + a_{13}) - (a_1 + a_2 + a_3 + a_4 + a_5)$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시오.

3. 함수 $f(x) = \begin{cases} x^2 + ax & (x \leq 2) \\ 2x + 2a & (x > 2) \end{cases}$ 이 $x = 2$ 에서 미분가능할 때, 상수 a 를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시오.

4. 두 함수 $F(x)$, $G(x)$ 가 모두 다항함수 $f(x)$ 의 부정적분이고 $F(x) = x^3 - 6x^2 + 1$, $F(2) - G(2) = 7$ 을 만족할 때, $G(f'(2))$ 의 값을 구하는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빈 칸 을 가장 적절하게 채우시오.

$F(x)$, $G(x)$ 가 모두 $f(x)$ 의 부정적분이므로

$$G(x) = F(x) + C \quad (C \text{는 상수})$$

로 놓을 수 있다. $F(2) - G(2) = 7$ 이므로 $C = \text{(가)}$ 이 되고,

$$G(x) = x^3 - 6x^2 + \text{(나)}$$
 이 된다.

또한 $f(x) = F'(x)$ 이므로 $f(x) = 3x^2 - 12x$ 이고, $f'(x) = 6x - 12$ 이 된다.

따라서 $G(f'(2)) = \text{(다)}$ 이다.

2024학년도 한신대학교 수시·정시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수 시 모 집										정시모집		
		정 원 내							정원외			정원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학생부 교과			가군	다군	
		학생부 교과 I	학생부 교과 II	체육 실기	사회 배려자	고른 기회	참인재	논술	기회 균형발	농어 촌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신학·인문융합계열	207	73	50		12	22							50	
신학 인문 융합 계열	신학	20					20							
	종교문화학	13					13							
	철학	12					12							
	독일어문화학	12					12							
	영미문화학	16					16							
	문예창작학	16					6	10						
	한국어문학	13					13							
	한국사학	16					6	1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15					15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8					4	4	3		1				
경제통상·국제지역계열	81	28	19		5	9							20	
경제통상 국제지역 계열	중국학	15					15							
	일본학	14					14							
	국제경제학	13					13				1			
	경제학	13					13				1			
글로벌·공공인재융합계열	49	18	12		3	6							10	
글로벌 공공인재 융합계열	글로벌인재학	16					16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16					16							
경영·미디어계열	78	27	19		6	6							20	
경영 미디어 계열	경영학	12					4	8	3	3	2			
	IT경영학	11					3	8			2			
	글로벌비즈니스학	12					4	8			1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17					7	10	4	4	2			
휴먼서비스계열	81	28	19		8	6							20	
휴먼 서비스 계열	사회학	13					13							
	사회복지학	13					5	8	4	3				
	재활상담학	13					13		3					
	심리·아동학	16					6	10	3	3				
특수체육학	32			22									10	
이공계융합계열	50	15	12		8	5							10	
이공계 융합계열	수리금융학	16					6	10						
	응용통계학	16					6	10						
AI SW 계열	소프트웨어	217	49	32		10	6	23	64	7	6	7		33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XR콘텐츠													
	지능형IoT													
	휴먼머신인터랙션													
AI시스템반도체학	32	8	4			3	4	8					5	
합 계	1,194	246	167	22	52	63	298	168	27	19	17	95	83	
모집시기별 선발인원		1,016							63			178		

■ 전형유형 및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사정 방법	모집 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면접 고사	실기 고사	서류	논술	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I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246명	100					100
	학생부교과II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67명	100					100
	체육실기전형	특수체육학	일괄합산	22명	60		40			100
	사회배려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52명	100					100
	고른기회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63명	100					100
학생부 종합	침인재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298명		30		70		100
논술	논술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68명	40				60	100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1. 학생부 반영교과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	활용지표
전체전형 (학생부교과 제외)	전체 모집단위	국어/수학교과 중 3과목 + 영어교과 3과목 + 사회/과학교과 중 3과목	총9과목 석차등급 (9등급)
학생부교과비	해당 모집단위	인문계열 : 국어교과 전과목 자연계열 : 수학교과 전과목	해당교과 전과목 석차등급 (9등급)

2. 학생부 석차등급 환산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9	98	97	96	95	94	80	50

■ 수능시험 반영 방법

1.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 방법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구(1과목)	활용지표
전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우수영역 순서대로 50%+30%+20%				백분위점수

2. 영어 절대평가 반영방법

영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환백분위	100	95	90	85	80	70	60	50	40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위 18101 경기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전화 : 031-379-0107~9

팩스 : 031-372-6101

<홈페이지> <http://ent.hs.ac.kr>
